

국민연금 납부예외 비중 증가... 공적연금 '사각지대'

광주·전남 납부중단 16.6%·13.1%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활용 필요 공단 '취약계층 홍보 활동 강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할 정도로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 그룹의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38.81%에서 겨우 2.15%p 늘어난 수치로, 소득수준 '중', '상' 그룹 가입률의 절반에 불과했다.

소득수준 '상'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46%로,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9년 73.62%로 이미 70%를 넘겼다. 소득수준 '중' 집단의 가입률 역시 2009년 64.47%에서 2021년 78.09%로 13.62%p 증가했다. 소득수준 분류는 20~59세 근로 연령 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 임금의 1.5배 초과면 '상', 그 중간은 '중'으로 정의했다.

광주·전남지역도 국민연금 납부 중단 중인 납부예외자(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광주 51만3429명, 전남 69만6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광주 30만4631명, 전남 43만3293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광주 10만863명, 전남 13만1332명이었다.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을 제외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 중단 중인 '납부예외자', 즉 저소득층 가입자는 광주 8만5120명, 전남 9만80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6.6%, 13.1%에 달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정기적 소득이 있어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인식

하고 가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 휴업 중인 사업장이나 정기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가입을 피하거나 납부를 중단하기도 한다. 저소득자 기준은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 현황을 토대로 판단하며,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 중인 '납부예외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에 국민연금 광주본부는 '지역 설명회', '현장 홍보'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본부는 저소득가입자의 공적연금 가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도입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미만)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

도다. 광주·전남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022년 1953명에서 2023년 696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3993명이 신규로 지원 제도를 활용해 납부예외자에서 소득신고자로 전환됐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 제도도 꾸준히 신청자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신청자는 광주 1580명, 전남 1486명 등 총 3066명으로, 상반기에만 지난해 신청자 수의 65%를 달성했다. 지난해 가입자 수는 광주 2415명, 전남 2286명 등 총 4701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전환 및 증가 추세에도 전체 가입자의 약 15%에 육박하는 저소득층은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소득층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등을 인지할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 광주본부는 직장인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은 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본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피 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활동, 공공기관 홍보물 비치 등의 활동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준선 국민연금 광주본부 본부장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바쁜 소외계층·취약계층은 공단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며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남도정 소식지(전남새뜸) 기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대중교통 등에 국민연금 홍보물 비치를 늘리고 소외계층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프리미엄 직수입 빈티지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행사장에서 남양주 프리미엄 직수입

빈티지 스토어인 '슈퍼식스 팝업' 행사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세계 직수입 프리미엄 세컨핸드 상품 전문 스토어인 슈퍼식스는 스투시, 슈프림, 칼하트, 폴로 등 하이엔드 상품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세컨핸드 상품을 정품 검수와 철저한 케어 작업을 통해 최상급 컨디션으로 제안한다. 행사기간 동안 인기 상품인 폴로 셔츠는 상품 3개 구입시 1개를 무료로 증정하는 '3+1' 이벤트도 진행한다. 더불어 빈티지 주얼리 및 벨트, 손수건 등 빈티지 잡화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광주은행,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 6천억 지원

신규자금 3천억·만기연장 3천억 업체당 최대 30억원 이내 한도

광주은행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추석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됐으며,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

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3000억원과 만기연장 3000억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신규자금에 한해 산출금리 대비 최고 1.0%p(포인트)를 우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추석명절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 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자금 지원을 비롯한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일 하절기 풍수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시행하는 등 집중호우·산불·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발빠르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꾸러미 전달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잔망루피' 팝업스토어 진행

29일까지 본관 지하 1층

광주신세계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잔망루피' 팝업스토어를 연다.

1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ZANMANG SPLASH'라는 주제로 힙하고 잔망스러운 폴카티 콘셉트의 팝업스

토어를 진행한다.

이번 잔망루피 팝업스토어는 광주에서 열리는 힙하고 잔망스러운 폴카티 콘셉트로 시원한 야외 풀장을 배경으로 야자수 등을 연출해 휴양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꾸며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사장 곳곳에 잔망루피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되었다. 잔망루피 팝업스토어에서는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스페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노트드와 콜라보한 한정판 부채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3만원 이상 구매 시 짱 없는 룰렛 참여권을 최대 3회까지 증정한다. 룰렛 상품은 루피 인형부터 루피 스티커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잔망루피 한정 프레임 네컷사진 무료 이용권 증정과 패션 10만원 이상 구매시 당일 사용가능한 1만원 할인권도 선착순 증정한다. 나다운기자

재테크 칼럼

'금투세' 앞서 증시 투명성 높여야

2025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없던 세금이 새로 등장하니 금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 반발을 잠재우려면 금투세 제정과 시행의 명분과 논리를 내놓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한국의 증시 여건을 보면 금투세는 시기상조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은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위 1%만 대상으로 하는 과세가 문제될 것이 없고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잠복하고 있

다. 우선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성숙도가 낮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증시는 주주환원율이 92%에 달하는데 한국은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늘 문제가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존하고 있어서 상장회사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 한국증시의 투자자들이 당연히 받아할 배당 등 투자수익을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게 배당받고 있고 투자한 회사의 가치도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이런 부당함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에 비해서 한국은 이점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성숙도를 선진국 증시 수준으로 올린 다음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보다 훨씬 부자 투자자인 사모펀드

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절반 감세가 가능해져서 금투세 시행 명분으로 부자 감세가 방지돼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도 무색해지고 있다. 놀라운 점은 금투세 시행을 가장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한번도 주식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하기 시작해서 아마 2025년도 시행은 어려울 듯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금투세에 앞서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